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7회 호렙산 기도회

“그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

6.2~7.11 매일 새벽 4:45



몽골 날라이흐 광림교회 봉헌예배

상처와 아픔의 땅에 회복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헌하다

광림교회는 5월 29일(목)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 지역에 새로운 성전을 봉헌했다. 몽골 현지 성도들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몽골 선교사회, 광림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봉헌예배에는, 상처와 아픔의 땅에 새로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광림교회는 202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몽골 선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대지를 구입했고, 이날 최신식 개교교회를 지어 봉헌하게 되었다.

어잉게렐교회 성도의 준비 찬양으로 시작된 봉헌예배는 유심원 선교사의 사회와 어등가와 선교사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봉헌예배의 기도를 맡은 장세근 장로는 “몽골에 세 번째로 세워진 날라이흐 광림교회가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봉헌예배의 말씀을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3~18)라는 제목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으로 진정한 신앙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두 번째는 선교하는 믿음으로 선교를 통해 복음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의 전파로 현지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며, 날라이흐 광림교회로 인해 몽골 복음화와 현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했다.

이번에 광림교회에서 성전을 봉헌한 날라이흐 지역은 최근 몽골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많은 인구가 이주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 이전 날라이흐 지역은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촌으로, 이곳에 살던 몽골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석탄 채굴을 하던 과정 중에 갱도 내에서 질식사하거나 붕괴 및 실족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5년 전 처음 날라이흐 지역을 방문하여 몽골 동부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었다. 라마불교와 샤머니즘에 익숙한 몽골인들이, 특별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날라이흐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

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성전이 세워지길 기도했다. 그러던 중 날라이흐 지역의 영향력 있는 라마불교의 주지를 만나 날라이흐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를 설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동한 주지가 관공서 인근의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봉헌예배 중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봉헌의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면,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고 전했다.

말씀 이후에는 어잉게렐 교회의 성도들이 한국 복음성가 ‘은혜’에 맞추어 워십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봉헌예배에 참가한 청장년부 성도들이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몽골어와 한국어로 부르며 봉헌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3면에 계속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열어 들으라

“...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 46:10)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Martin Luther)가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46편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내 편이 되시는 강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국가보다 마틴 루터가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더 많이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의 주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파’라고 하며 동사형이자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히 하라’, ‘단순하게 하라’, ‘마음을 비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9장 1~37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국난을 극복한 내용을 다룬 시편입니다.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는지 특별히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앉히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구원을 받았았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광야의 홍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며, 뒤에는 애굽 병정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의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침묵으로 급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조용히 생각하며 말을 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46:4~11

4.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6.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7.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8.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데도다 10.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끝자리에는 욕망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욕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의 침묵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말, 욕심과 정욕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믿는 자세와 듣는 자세로 변하여 하나님이 지금의 때에 무엇이랴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월 2일부터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년마다 여호와와의 성산에 올라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혹 고난과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였던 안토니 블룸 (Anthony Bloom)은 기도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기도란 단순한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다.” 깊은 만남이란 일방적으로 나의 말이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들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빈 마음이 될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셋째, 준비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 ‘때’를 말합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이런 시간에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의 때, 밤이 깊어서 여명이 떠오를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시대의 시끄러운 소리에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다릴 줄 아는 시대의 사람들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끝임없는 시기와 경쟁의 마음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사건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주의 음성예 아멘이라 응답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이번 날라이흐 광림교회는 김선꽃꽃이선교회 회원들과 지역회 권사(광림교회)가 대지 구입 및 개교교회를 건축했고, 성구 물품은 김선꽃꽃이선교회, 음향장비(키보드)는 광림남교회 청장년부, 방송장비는 광림교회 청장년부에서 헌신하였다.

봉헌예배에 참석한 광림교회 청장년부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직접선교가 제한되어 있는 몽골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선교팀을 꾸려 봉헌예배 다음 날인 5월 30일(금)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날라이흐 광림교회로 초청하여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몽골인들을 초청하고, 어잉게렐교회 교인들이 함께하여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번 한국문화행사에는 날라이흐 광림교회 인근 지역주민들과 어린이 200여 명이 방문하여 한국 음식 체험과 한국 전통 놀이, 페이스페인팅, 공예, 릴스 촬영, 인생 네 컷 사진 찍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국문화행사에 아이를 데리고 왔던 학부모 중에는 날라이흐 광림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주일에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다. 문화행사를 마칠 때까지 남아있던 여학생들은 청장년부 선교팀과 어잉게렐교회의 현지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결심하여 함께 기도했고, 6월 1일(주일) 날라이흐 광림교회에서 드려진 첫 번째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날라이흐 광림교회는 광림교회가 몽골에 봉헌한 세 번째 성전으로, 2002년 울란바토르 북부에 어잉게렐(빛의숲) 광림교회와 2006년 울란바토르 서부 어르비트(세상의빛) 광림교회에 이어 울란바토르 동부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 상처와 아픔의 땅에 봉헌된 날라이흐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을 전하는 몽골 동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란다.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그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



주여! 주여! 주여! 합심하여 힘차게 외치는 주여 삼창이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있다.

주여 삼창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처절한 리만경 간절한 기도의 외마디이다.

6월 2일(월)부터 시작된 제37회 호렙산 기도회는 첫날부터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합성과 힘찬 찬양과 은혜의 말씀으로 천국잔치와 같다. 특별히 6월 3일,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선을 하루 앞두고 시작한 호렙산 새벽기도회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출 14:31)는 주제로 오는 7월 11일(금)까지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열리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세상의 그 날, 대한민국의 그 날, 광림교회의 그 날, 개인의 삶가운데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올해로 37년째를 맞은 호렙산 기도회는 1989년부터 시작되어 한국교회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정착시킨 효시가 되었다. 호렙산 기

도회는 광림의 영적 전통이며,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고, 믿음의 자리다.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 세워진 광림교회 미션센터에서도 본당과 동일한 일정으로 함께 진행된다. 또한 광림의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교회에서 호렙산 기도회에 함께 하며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은혜의 현상이 국내외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림교회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 동참한다.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다. 기드온선교회는 이른 새벽부터 주차 봉사로 성도들을 섬기며, 예배위원회는 예배가 온전히 드러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안전을 돕고, 방송실과 중계 카메라는 온라인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위원회, 은혜로운 찬양으로 돕는 오르간 반주

자와 찬양팀, 연주팀 등은 호렙산 기도회를 더욱 뜨거운 열기로 채우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한 전교인 총력 새벽기도운동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한다는 기독교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졌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곳으로 호렙산 기도회에서는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영적 각성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이고 호렙산에 올라갑시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광림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변영혜 기자

포토 뉴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

6월 2일 ~ 7월 11일까지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40일간 진행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 중 루체포레 운영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토요일, 주일
오전 5시 40분 ~ 오전 7시까지
루체포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도 제3회 사랑나눔 행사

남선교회총연합회는 6월 1일(주일)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가졌다.

감독회장 동정



5/2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축사

5/28~30 몽골 날라이흐 광림교회
봉헌예배

5/31 천안 선교 120주년 기념
선교대회

6/2 CBS사장 이·취임식

6/2~7/11 제 37회 호렙산 기도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감리회 본부, 일영에서 새롭게 출발하다

5월 12일, 본부교회에서 감사예배 드려



일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일영연수원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5월 12일 오후 본부교회(이전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며 감리회 본부의 일영 시대를 열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막 9:5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익숙했던 장소를 떠나 낯선 환

경과 불편한 출근을 감수해 준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다. 이는 화목을 위해선 소금과 같이 먼저 자신을 죽임으로써 맛을 살리고 대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희생은 바로 이러한 소금의 희생과 같으며, 화목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희생이 감

리교회 공동체와 다른 생명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축사를 한 이철 감독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광화문에서 시위가 펼쳐져 감리교회가 대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마음속으로 본부를 옮겼으면 했는데, 김정석 감독회장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으로 옮길 수 있었다. 미래 세대는 권위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 있기에 이제 감리교회는 일영의 시대를 열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감리회의 본부 사무실은 1930년 남북 감리교회가 통합해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 내 한옥 건물에서 시작해 195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1959년 미감리교회의 후원을 받아 세운 감리회관으로 이전했으며 1976년 감리회관을 8층으로 증축했다. 또 한번의 감리회관 증축을 위해 1985년 여의도 정우빌딩으로 임시 이전했고 1991년 광화문으로 돌아왔다.(13층부터 20층까지 소유) 3년 후인 1995년 여의도 정우빌딩으로 다시 임시 이전했다가 1999년 광화문으로 돌아온 이후 2025년 4월까지 업무를 해왔다.

기존 광화문 감리회관 빌딩에 있던 대부분의 사무실은 일영연수원으로 이전했으며, 남은 부서는 지하 3층의 서점과 19층의 회관 관리부다. UMC 아시아선교사사무소와 UMC 선교부 재단 사무실도 광화문에 남아 있다.

이득섭 기자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오병이어 음악회'



국외선교위원회(문찬수 장로) 주관으로 지난 5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1층 루체포레에서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오병이어 음악회'가 열렸다.

2000년 6월 광림교회가 봉헌한 안디옥개신교회는 2023년 2월 대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 국외선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폐허를 딛고 다시 세워질 안디옥개신교회의 재건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오병이어 음악회를 기획했다.

100% 재능 기부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평생교육대학원 KSEC합창단(시니어 여성합창

단), 바리톤 오희평 교수, 사이닝스쿨 학생들, 바이올린 이가원 어린이가 출연하고 이선영 권사가 지휘를 맡았다. KSEC합창단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곡 '임마누엘'을 시작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옷자락'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다.

이가원 어린이는 비에니아프스키의 'Polonaise in D major, op 4'를 깊은 울림이 있는 바이올린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사이닝스쿨 학생들과 KSEC합창단은 '엄마야 누나야'와 '섬집아기', 'Mother of mine'을 함께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오페라 가수인



바리톤 오희평 교수는 '시소타기'와 'O mio babbino caro'를 힘차게 불렀고, 합창단과 함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합창했다. KSEC합창단은 마지막 곡으로 'O sole mio'와 앙코르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하며 음악회를 마쳤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안디옥개신교회가 재건 되기를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무슬림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천여 년 전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귀한 장소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며 음악회를 준비한 손길과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찬수 장로는 "이번에 개최한 오병이어 음악회와 호환산 기도회 동안 계속될 사진전이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개신교회가 잘 재건되어 봉헌될 때까지 국외선교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도움 되는 일을 찾아서 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국외선교위원회는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오병이어 점시를 제작하여 본당 지하 1층 국외선교위원회실과 루체포레, 빛의 숲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재건 현금으로 드러진다. 또 안디옥개신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이 본당 로비 중앙 복도에서 전시되고 있다.

박희윤 기자



청년부

LFC 청년부 연합속회 지도자교육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



광림교회 LFC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100여 명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속회 지도자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시간은 임원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자리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고, 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의와 나눔, 그리고 청년부가 진행하는 여러 선교 프로젝트와 사역을 준비하는 워크숍이 함께 진행된다.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이 시간은 임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영적 훈련의 장이 되고 있다.

삶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모임은 지난 한 주간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임원들은 이전 모임에서 나눈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일주일 동안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다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떤 은혜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공동체 안

에는 감사와 감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

임원들은 매월 교회에서 발간하는 ‘온타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간다. 매주 모임에서는 그 주간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교구별로 나누며, 서로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는 깊은 교제를 이어간다. 이 시간은 단순한 말씀 나눔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신앙 훈련의 장이 된다. 담당 목회자는 매달 온타임 본문에 따라 성경 개론을 교육하며, 임원들이 성

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성경이라는 ‘숲’을 바라보는 큰 시야를 갖게 한 후, 매일의 온타임 본문이라는 ‘나무’를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이어간다.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모임의 마지막은 언제나 기도로 마무리된다. 임원들은 가장 먼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마음을 모은다. 서로의 삶과 사명을 중보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품고 함께 걸어간다. 그리고 각 속회에 속한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위로와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구한다. 교회와 부서에서 진행되는 목회 프로그램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 된 LFC 청년부는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예비하신 사역의 현장으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교회학교

제1회 광림 어린이 드론 축구대회 개최



2025년 5월 25일과 6월 1일, 광림교회 교회학교가 주최한 ‘제1회 광림 어린이 드론 축구대회’가 사회봉사관 3층 풋살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드론이라는 새로운 E스포츠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를 이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회학교는 어린이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드론 전용 경기장을 직접 제작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했다.

드론 축구는 드론이 공 역할을 하며 골대에 넣는 독특한 경기 방식으로, 유소년용 ‘스카이 킥2’ 드론이 사용되었다. 이 새로운 형식은 어린이들에게 도전이자 즐거운 놀이로 다가왔다. 총 16개 팀, 64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새신자 어린이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4대 4 팀 경기로 구성된 대회는 협동심과 팀워크를 기르는 기회가 되었고, 어린이들은 드론 조종을 통해 기술과 문화를 배우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했다. 전도사들이 중계 캐스터와 해설자로 나서 생동감 있는 해설을 제공했고, 가족들의 응원 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했다.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 학부모, 어린이들이 하나 되어 준비한 이 행사는 신앙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열린 공동체 축제’였다.

대부분의 참가 어린이들이 드론을 처음 접했음에도 큰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팀워크와 역할 분담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며, 16장에서

탈락한 팀도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개방해 모든 어린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경쟁보다 함께 성장하는 축제의 의미를 체감했다. 대회는 프로 스포츠 현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귀한 경험을 선물해 준 대회”라며 만족을 표했고, 어린이들은 “다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론이라는 미래 기술을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접하며, 교회가 예배뿐 아니라 즐거움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어린이들 마음에 새겼다. 우승 팀에게는 드론이 상품으로 주어지며 다음 대회를 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대회를 준비한 정성민 목사는 “드론을 통해

어린이들이 순수한 즐거움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교회학교는 신앙, 배움,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드론 축구가 어린이 전도의 도구로 활용되어 어린이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제2회, 제3회 드론 축구 대회를 이어가며, 어린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 발전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으로 다음 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혜선 기자



목회현장

내년에 다시 만남을 기약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에 50개국 선교사 686명이 다녀갔다. 올해도 벌써 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다녀가거나 머물고 있다. 감사하게도 해마다 10~20%씩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제 최소 6개월 전에 예약해야 원하는 기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광림교회와 교단에서 후원과 기도로 협조해 주어 가능한 일이다. 머무는 이들이나 수고하는 이들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목요일에는 지하 식당에서 선교사 열댓 명이 모여 올해의 감사와 내년을 기약하는 공동식사를 하였다. 5월이 되어 연회 참석과 140주년 선교대회를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이들이 각자 정성껏 준비한 나물과 전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며 다시 만날 내년을 기약하며 페어웰 파티를 한 것이다. 참석자 대부분은 3년째 센터를 찾아오는 단골손님(?) 들이다.

이제 4년 차가 되는 선교센터에는 조그만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보통 선교사들은 4월 부활절 전 주간에 입국하여 선교사교육원(원장 박주환 목사)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정회

원 교육을 받고, 각 연회에 참석하여 1년간의 선교 보고를 한다. 또 전체 선교사대회에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수고를 기리고, 별세자들을 추모하고 선교지로 돌아간다. 그러나 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일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서울 인근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일(이 행사는 자매결연을 한 1선교구의 후원과 광림교회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과 페어웰 공동식사를 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5월 14일(수) 철원으로 유적지 탐방을 다녀왔다.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원서지방회 장흥교회(한찬희 목사)를 방문해 1920년 시작된 교회가 기도 운동을 통해 대한수도원 설립에 일조한 것과 1951년 남북되어 순교한 서기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한탄강 주상절리의 잔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그리고 소이산 전망대에서는 멀리 북한 땅을 바라보며 속히 통일이 오기를 염원하였다.

다음날 이제 서로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조용한 다짐을 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공동식사를 하였다. 고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선교사들은 다음 사역을 위해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싣는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서로의 선교 현장에서 굳세게 싸워나가기를 서로 격려하며 일어선다. 이제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가 전 세계 선교 전사들의 쉼터로, 재충전의 장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상훈 목사(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광림북교회

새가족 초청 ‘한마음 봄소풍’



광림북교회는 지난 5월 22일(목), 총력전도기간 전도된 새가족들을 초청해 강원도 속초로 ‘한마음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봄별이 포근히 내리쬘던 이날,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

누며, 믿음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봄소풍은 설악산 자생식물원, 동명항, 고성 앞바다를 다녀오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설악의 푸른 숲과 향긋한 야생화들이

어우러진 식물원에서는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어 도착한 동명항에서 시원한 바다 풍경과 함께 나눈 식사 시간은 낮선 얼굴들 사이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좁혀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시작된 대화는 신앙 이야기로 이어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고성 앞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탁 트인 동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렸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는 간증의 시간이 마련되어 큰 감동을 더했습니

다.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돌아가며 광림북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나둘 전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이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봄 소풍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새가족들이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교회가 준비한 따뜻한 손길 속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림북교회는 앞으로도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과 섬김의 장을 마련해갈 계획입니다.

김우진 목사(광림북교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제1차 성인 세례 및 입교 예식> 5월 25일 주일, 김정석 감독회장 집례로 58명 세례, 39명 입교



입교 →	16교구 이은서	16교구 정윤성	16교구 최현우	18교구 김주호
20교구 권도연	20교구 김민지	20교구 박혜인	20교구 장유정	20교구 홍승재
21교구 한예원	23교구 박성호	26교구 남유은	27교구 김민채	28교구 양라운
51교구 김한서	51교구 박정연	52교구 송영우	75교구 김은영	75교구 민지현
75교구 이인호	88교구 김민정	88교구 김민지	88교구 김상현	88교구 김의호
88교구 김이선	88교구 김택중	88교구 남요셉	88교구 박다민	88교구 신희섭

88교구 이준성	88교구 유희서	88교구 정유찬	88교구 최종관	88교구 한정재
88교구 황연진	88교구 허정욱	교회학교 김예은	교회학교 김예진	교회학교 이원석
세례 →	2교구 김민호	2교구 박선녀	2교구 이정숙	4교구 신수지
4교구 조윤재	5교구 장윤정	7교구 김윤수	7교구 김현숙	7교구 이설환
7교구 최미연	8교구 전소영	9교구 김혜영	13교구 김성철	13교구 박지영
14교구 홍세종	16교구 김누리	16교구 김순석	16교구 박연주	17교구 김혜령
17교구 서두희	18교구 김태우	18교구 이현구	19교구 김가연	20교구 김태준
21교구 조유민	22교구 이소영	23교구 유승연	23교구 이형민	26교구 이진솔
26교구 황혜경	27교구 김대규	27교구 김지은	27교구 김현자	27교구 이요심
27교구 최영찬	29교구 김유나	29교구 서주희	51교구 강원자	51교구 김태윤
51교구 정유진	51교구 정진량	52교구 박재은	52교구 심 낭	52교구 스바이모니
52교구 이홍범	53교구 전 웅	71교구 알탕호악	71교구 투굴두르	71교구 후슬렌
88교구 김영환	88교구 송시연	88교구 신서연	88교구 이정혁	88교구 이찬희
88교구 임유민	88교구 최민선	교회학교 이민영	교회학교 장윤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선교의 역사 4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며,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초기 선교 활동에서는 의술을 통한 사회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885년 광혜원이 설립되었고, 1903년에는 맹인학교, 1909년에는 부산 나환자 수용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여성 해방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절제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소개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봉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근대적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을 이끌어왔습니다. 1921년 미국 남감리회 마이어스(M. D. Myers)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태화복

한국 교회와 사회사업

지재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소외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사업을 펼쳤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도왔습니다. 1992년에는 정신장애인 훈련 사회복지시설 인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많은 국민들이 기아, 질병, 빈곤 속에 허덕일 때, 한국 교회는 세계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구호와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에 설립된 월드비전(구 선명회)은 선교사 겸 중군 기자였던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가 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으며, 현재는 국제적인 기독교 사회복지 단체로 성장하여 세계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노동자 문제, 청소년 문제, 도시 빈민 문제 등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의 전도와 봉사활동이 뒤따랐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복지 기관을 이끈 지도자들의 79%,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부나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수행된 일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선교 전략이 개발되었고, 각 교회와 기독교 단체도 복지재단을 만들어 사회복지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7년 세워진 광림복지재단은 1991년 '사랑의 집'을 열어 사할린 동포를 돌보았습니다.

사랑의 집은 2002년 <광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원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사회사업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정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으로 선교의 등불 밝혀

국외선교위원장 - 문찬수 장로



광림교회 국외선교위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오병이어 음악회를 개최하고, 호렙산 기도회 기간에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사진전을 열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소망의 빛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국외선교위원장 문찬수 장로를 만나 보았다.

얼마 전 국외선교위원회에서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오병이어 음악회'를 열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적은 인원로 오병이어 음악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많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음악회

이름을 '오병이어'로 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든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에 축사하시고 오천 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능력의 역사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음악회 준비는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지휘자, 반주자는 물론 솔로 부분, 앙상블, 심지어 포스터와 티셔츠 디자인, 홍보, 음향과 아나운서 및 콘티 작가, 행사진행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음악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누리며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에 벽돌 한 장을 쌓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 본당 로비에서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본당 1층 중앙 복도 전시공간에 사도바울이 세운 초대교회인 안디옥교회로 추정되는 사진과, 2006년 광림교회가 봉헌한 안디옥개신교회, 2023년 튀르키예 지진으로 무너진 가슴 아픈 안디옥개신교회 현장, 앞으로 재건될 안디옥개신교회 모습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도들이 합심으로 중보기도 함으로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안

디옥개신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국외선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느낀 보람은?

저는 내과 의사로 광림교회에서 1989년부터 의료선교로 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선교위원장으로서 섬기며 해외의료선교의 발판을 다지는데 18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국외선교위원장을 맡아 해외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지의 고충과 문제점들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국외선교위원들과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고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선교위원회가 나아갈 비전과 기도 제목은?

국외선교위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은 9개국 11개 해외선교센터가 감독회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10개국 12개 선교센터로 확장되도록 기도로 도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외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오병이어 음악회와 안디옥개신교회 사진전이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의 마중물이 되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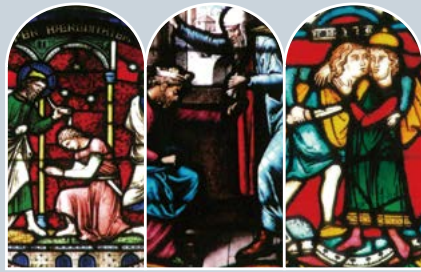
✚ 소현수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13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20~22)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크게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했다. 이에 겁을 먹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자 외숙부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가 외숙부의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고, 사막 근처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 야곱이 보니 땅에 높은 사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윽고 야곱이 우르 땅에 도착했을 때 외숙부 라반은 그에게 기꺼이 집을 마련해 주었다. 야곱은 외갓집에서 외숙부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났다. 그는 아름다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고는 외숙부에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했다.
“나를 위해 7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면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 야곱의 사다리_야곱은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받아내고,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밤을 지새웠다. 돌을 베개 삼아 잠든 야곱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다.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이라 불린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작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하인처럼 일했다.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라반은 자신의 고장에서는 여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못한다며 말을 바꿨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일했다.
7년이 지난 후 라헬과 결혼한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일을 잘하므로 품삯을 원하는 만큼 줄 터이니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 이에 야곱은 라반의 양 떼를 돌봐주는 대신 그가 운테서 검은 양의 새끼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염소의 새끼를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라반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은 후 자기 아들들을 불러 야곱이 맡은 가축 중에서 검은 양과 얼룩진 염소는 모두 빼고, 야곱에게는 흰 양과 흰 염소만 맡겼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라반의 계획을 알아채고 있었다. 영특했던 야곱은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흰 줄무늬를 내놓고 가지들을 구유 안에 세워 놓았다.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흰 줄무늬를 보게 한 것이다. 또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에도 흰 줄무늬 가지를 보여줘 검은 양과 얼룩진 염소를 낳게 했다. 게다가 야곱은 건강한 양과 염소에게만 흰 줄무늬가 난 가지들을 보여 줬다.

◀ 드라빔을 숨기는 라헬_야곱 일행을 쫓아온 라반이 드라빔을 찾고 있는 장면이다. 야곱이 고향으로 떠날 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보물인 드라빔을 몰래 훔쳤다. 라반은 드라빔을 되찾고자 했으나 총명한 라헬은 자기 치마 아래 드라빔을 숨겨 찾지 못하게 했다. 이후 라헬은 야곱의 고향을 가는 도중에 베나민을 난산(難産)하고 숨을 거두었다. 죽은 라헬은 에브랏(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티에폴로 작품

이렇게 되자 6년이 더 지난 후에는 야곱의 가축이 라반의 가축보다 훨씬 많아졌고, 이에 앙심을 품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이미 위기감을 느낀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한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보물인 드라빔(Teraphim)을 몰래 가져왔다. 드라빔은 재산 상속의 의미를 지닌 집안의 수호신상으로, 라헬은 아버지의 재산을 훔친 셈이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고자 야곱을 쫓아왔으나 찾지 못했다. 야곱과 라반은 돌기둥을 세워 언약의 증표로 삼고,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였다. 후에 이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 불렸다.

